

농수산물 유통 근대화의 선봉

취재 / 최 태 원 <홍보부 대리>

서울 강동의가락동 하면 이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연상하리 만큼 그곳의 이미지는 우리 생활속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이곳 가락동 289번지에 도매시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그저 평범한 서울의 번두리에 지나지 않았던 곳. 그러나 개장된지 불과 1년남짓한 사이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인접된 88올림픽 타운, 그리고 주변의 고층아파트 주거지역 등과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며 이 지역 일대를 상업권의 요지로서 뿐만 아니라 일약 거대한 생활권으로 변모시켜 놓는데 한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

1. 시장개요

이 시장의 설립은 1977년 8월 농수산부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방침을 정한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유통구조개선과 도시환경개선이라는 정책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80년 4월 서울시에서는 시내에 4대 商圏 건설계획을 수립, 그 첫 사업으로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한 것이다.

총 16만6천여평의 대지에 청과시장등 4개동의 도매시장과 7개의 부대시설등 등 연면적 6만 여평의 <주요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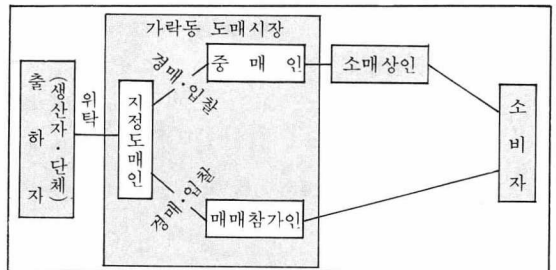
	시 설 명	면적 m ²	비	고
도매시장	청과시장	106,858	1층 매장, 중매인점포(462), 저온창고(0℃~3℃)·식당, 사무실	2,3층
	수산물시장	39,845	1층 매장, 중매인점포(206),저온창고(-2℃~-5℃)·사무실	2,3층
	축산물시장	13,879	육가공실, 내장처리실, 저장고, 도축장	
	트럭단위판매장	3,840	대금계산소32개, 동시주차 448대	
부대시설	청과관련상품시장	5,712	포장자재, 가공식품, 특산물, 농약품, 수리소등 점포70개	
	수산물관련상품시장	2,565	포장자재, 통조림류, 건어제품, 간이식당등 점포31개	
	냉동창고	4,698	냉동실(-40℃), 냉장실(-20℃), 저빙 100t, 계빙 20t/일	
	휴식시설등	3,186	목욕탕, 식당, 휴게실	
	주유소	690	주유기 8대, 저유능력 200Kℓ	
	관리금융동	11,635	1층, 2층, 3층, 4, 5층 은행, 식당, 유통정보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17,480	동시주차능력 4,850대	
소매시장	3,175	청과점포(717), 수산물점포(101)		

건물이 저마다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큰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시장은 개장과 파장시간이 따로 없다. 다만 주기능인 도매가 성황을 이루는 새벽시간에 비해 그밖의 시간에는 소매단위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뿐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농수산물 합쳐서 약 2백종이나 되며 1일 취급물량도 5천톤에 거의 육박하는데 이것은 월평균 약 3백억원 정도의 거래액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 시장에는 하루 평균 10만여명이 드나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상주인원 6,000명을 합치면 1일 총 유통인원은 무려 10만6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 시장의 거래체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체계도>



2. 방화관리 조직현황

이 시장에는 시설물 및 유통구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있으며 방화관리업무는 이 조직의 관리부 시설과에 속해있는 5명의 방재실 담당요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소방설비기사 등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포함하여 각종 전기관련기기의 점검 정비에 대한 전기사항과 각종 소화설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기계사항, 또 가스시설 일체의 안전 점검 및 교육에 관한 가스사항, 그리고 시장내의 입주사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지위·야간소방대의 운영, 훈련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밖에 건축물의 방·내화에 관한 건축사항 등의 업무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편 방재조직현황을 보면 시장내 입주회사인 8개 지정도매회사의 각 방화관리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체계화한 596명의 지위소방대가 있고, 또 야간에 주로 영업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129명의 야간소방대를 조직, 야간 및 휴일에 대비하고 있다.

3. 방재시설 및 교육 훈련현황

이 시장에는 소화설비로서 소화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할론소화설비가 요소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경보시설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 자동화재속보기, 방송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외에 피난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방재의 총사령실이라 할 수 있는 방재실에는 CC-TV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시장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처,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방교육은 매월 민방위날에 정기교육을, 분기마다 특별교육을 입주회사 및 각종 방화관리 책임자에게 실시하고 있다. 화재시 행동요령을 비롯, 화재예방을 위하여 숙지하고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규모가 방대한 데다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이므로 화재시 사고가 대형화될 수 있다는 취약성을 고려해서 관할 강동소방서에서는 소방관 1명을 시장에 고정 배치, 교육 훈련 등 방화관리 전반의 업무를 지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철저한 교육과 체계적인 방재조직 운영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규모와 시장이란 특성 때문에 유지 관리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방재실의 장 동열씨는 『개장 당시만 해도 입주상인들은 생업을 위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처지였으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방재업무에는 협조가 잘

되지 않았습니디. 그러나 사장님이하 경영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간의 역경을 술회했다.

4. 방재대책 및 계획

이 시장은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늦은 작년 6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입주가 완료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정상상태로 올려놓기까지는 거둬된 난관이 있었다.

말하자면 방재라는 것이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그릇된 인식이 암암리에 뿌리박혀 있어 상호협조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입주 8개 도매시장이 매월 1회씩 자치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방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다.

방재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8개 회사끼리 교육·훈련 등의 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여 경쟁심을 유발시켜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그 성과에 따라 혜택 또는 규제도 해나갈 방침입니다』라고 소신을 피력하면서, 특히 동절기에 농산물의 냉해방지와 난방을 위하여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어 화기관리가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짓고 있는 건어물창고 등이 완공되면 관리면적이 더욱 넓어져 현재의 시설, 기동력만 가지고는 전지역을 커버해나기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점에 대하여 방재업무 전반의 실무책임을 맡고있는 시설과의 홍영선 대리는 『모든 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므로 유사시에는 1분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소화기를 적재한 소형차를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만 그 기동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더 필요한데 고객인 특수건물의 재산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협회에서라도 소방차 1대를 기증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다소 어려운 주문을 했다.

앞으로 상호협조에 최선을 다하자고 서로 굳은 약속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이러한 요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